

주제어 : 가극, 열세 집, 단심줄, 13도 자랑, 혁명무용, 항일혁명문학예술, 김일성

## 가극 <열세 집>의 북한 수용 양상과 그 의미\*

박영정\*\*

### <차례>

1. 머리말
2. 가극 <열세 집>과 북한의 <단심줄>·<13도 자랑>의 비교
  - 2.1. 북한 무용 <단심줄>과 <13도 자랑> 개관
  - 2.2. 작품의 비교: 공통점과 차이점
3. 가극 <열세 집>의 북한 수용 과정
4. 맺음말

### <국문초록>

북한에서 ‘혁명 무용’ <단심줄>과 <13도 자랑>은 김일성이 직접 창작한 ‘불후의 고전적 명작’으로 높이 평가 받고 있다. 그런데 <단심줄>과 <13도 자랑>의 원본으로 추정되는 가극 <열세 집>(김현순 작, 1920년 초연)이 발굴됨에 따라 이 작품들 사이의 관련성 분석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가극 <열세 집>과 북한의 <단심줄>·<13도 자랑>의 관련성 분석을 위해 먼저 가극 <열세 집>과 북한 무용 <단심줄>·<13도 자랑>의 비교·분석을 통해 작품의 기본구성은 동일하지만 일부 내용(주제 및 등장인물 구성)에서 차이가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1920년 첫 공연을 가진 김현순의 가극 <열세 집>이 1924년 평양 창덕학교의 <열세 집> 공연을 거쳐 김일성을 통해 만주지역의 <단심줄>과 <13도 자랑>으로 전파되었으며, 해방 이후 북한에서는 김정일에 의해 ‘혁명무용’ <단심줄>과 <13도 자랑>으로 재탄생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결과 북한의 ‘혁명무용’ <단심줄>과 <13도 자랑>은 김일성의 창작이 아니라 김현순의 가극 <열세 집>을 ‘개작한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따라서 ‘항일혁명무용’의 형성 과정에서 김일성은 새로운 작품의 창작이 아닌 기독교계 아동가극을 ‘혁명무용’으로 탈바꿈 시키는 데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8-411-J03301).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 1. 머리말

고죽(孤竹) 김현순(金賢瑠)의 가극 <열세 집>은 1920년 11월 27일 서울의 승동교회에서 첫 공연을 가진 이후 해방 이후까지 교회를 중심으로 공연되어 온 아동가극이다.<sup>1)</sup> 또한 1920년대 초에는 가극 <열세 집> 외에도 <초로인생>, <송죽의 절개>, <낙원> 등 다양한 아동가극이 교회 주일학교를 중심으로 공연되었다.<sup>2)</sup>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1920년대 초에 등장한 기독교계 아동가극의 대표작인 가극 <열세 집>이 시간적으로는 해방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공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간적으로 미국은 물론 만주지역, 나아가 북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지역에서 공연되었다는 사실이다. 박영정의 「가극 <열세 집>에 나타난 초기 가극의 한 양상」에서는 1920년 서울 승동교회에서의 첫 공연에서부터 1936년 미국 엘에이 루이스극장 공연에 이르는 공연 현황을 표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sup>3)</sup> 또한 해방 직후 안동지역에 발간된 『교회청년』에 실린 역사극 <열새사집>(1949)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으며, 각주를 통해 북한의 ‘항일혁명무용’ <단심줄>과 <13도 자랑>이 가극 <열세 집>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sup>4)</sup>

1) 가극 <열세 집>의 작품 내용 및 특징에 대해서는 박영정, 「가극 <열세 집>에 나타난 초기 가극의 한 양상」(『한국극예술연구』 제28집, 한국극예술학회, 2008, 71~113면) 참조.

2) 이 시기 교회 주일학교를 중심으로 공연되었던 아동가극 레퍼토리 및 공연 양상에 대해서는 박영정, 「1920년대 초 주일학교 공연 레퍼토리 분석: 고죽 김현순의 아동가극을 중심으로」(『한국문화과학』 제5집, 숭실대학교 한국문예연구소, 2010, 63~101면) 참조.

3) 박영정(2008), 앞의 글, 80~82면.

4) 박영정(2008), 앞의 글, 91~92면.

이 연구에서 새롭게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김현순의 가극 <열세 집>과 북한의 항일혁명무용 <단심줄>·<13도 자랑>의 관련성이다. 가극 <열세 집>의 주요 구성이 ‘단심줄놀이’와 ‘한반도 조각지도 맞추기’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가극 <열세 집>이 북한에서 각각 <단심줄>과 <13도 자랑>이라는 두 개의 작품으로 분리되어 수용되었을 것이라는 추정 아래 그 연결 고리를 추적해 나가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편 북한 문헌에서는 <단심줄>과 <13도 자랑>에 대해 김일성이 직접 창작한 ‘항일혁명무용’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명절날이나 아동청소년 관련 주요 행사에서 <단심줄>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다.<sup>5)</sup>



[그림1] 김일성광장의 설날 풍경(2013년 2월)



[그림2]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의 한 장면(2013년 7월)

[그림1]은 2013년 설날 김일성광장에서 북한 어린이들이 ‘단심줄놀이’를 즐기고 있는 장면이며, [그림2]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에서 ‘단심줄놀이’를 활용하여 비날론 생산을 형상한 장면이다. 북한의 혁명무용 <단심줄>은 단순히 역사적 장르일 뿐 아니라 오늘날의 살아있는 문화로 그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에서 <단심줄>이 생명력 있는 문화로 자리 잡은 것은 김일성이 직접 만들어낸 ‘불후의 고전적 명

작’에 해당한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북한에서 김일성 창작으로 알려진 <단심줄>·<13도 자랑>과 1920년대 초 김현순의 가극 <열세 집>의 관련성이 밝혀진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원작자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특히 시간 순서상 김현순의 가극 <열세 집>이 김일성의 ‘항일혁명투쟁’보다 앞서기 때문에 북한의 주장과 달리 ‘항일혁명무용’ <단심줄>과 <13도 자랑>의 창작자가 김일성이 아닐 수 있다는 가정이 가능해진다.

이 연구는 가극 <열세 집>과 북한의 <단심줄>·<13도 자랑>의 관련성 분석을 위해 먼저 가극 <열세 집>과 북한 무용 <단심줄>·<13도 자랑>의 동일성 여부를 살펴보고, 이어서 김현순의 가극 <열세 집>이 어떠한 경로를 거쳐 북한의 ‘혁명무용’으로 재탄생되었는지 밝혀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북한에서 ‘정전화(正典化)’되어 있는 ‘항일혁명문학예술’의 실체를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다.

## 2. 가극 <열세 집>과 북한 무용 <단심줄>·<13도 자랑>의 비교

김현순의 가극 <열세 집>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에서 상세하게 분석·소개된 바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북한의 무용 <단심줄>과 <13도 자랑>의 내용 및 형식을 소개하면서 가극 <열세 집>과 공통되는 점을 중심으로 그 관련성을 밝혀보고자 한다.

### 2.1. 북한 무용 <단심줄>과 <13도 자랑> 개관

‘항일혁명무용’ <단심줄>과 <13도 자랑>을 언급하거나 다루고 있는

5) 북한의 무용 <단심줄>과 <13도 자랑>에 대해서는 각각 『문학예술사전』(상)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8, 457~458면)과 『문학예술사전』(중)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1, 355~356면) 참조.

북한의 문헌 자료는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두 작품에 대해 집약하여 평가하고 있는 『문학예술사전』과 무용 동작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북한식 무용표기법으로 무용 동작을 기록해 놓은 『항일혁명무용동작』의 두 자료를 토대로 <단심줄>과 <13도 자랑>의 특징을 개관해 본다.

『문학예술사전(상)』에서는 <단심줄>에 대해 “혁명가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광스러운 초기 혁명활동 시기에 창작지도하신 불후의 고전적 명작”으로 규정하고 있다.<sup>6)</sup>

같은 자료에 따르면 <단심줄>은 “당의 령도 밑에 인민대중이 굳게 단결하여 투쟁하여야 나라의 독립을 이룰 수 있다”는 단결심을 주제로 하고 있으며, 기본 형식은 “노래와 춤이 배합된 예술형식”으로 되어 있다. <단심줄>의 기본구성은 다음과 같다.

작품은 로동자, 농민, 병사, 학생, 지식인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당을 상징하는 붉은 기둥을 무대중심에 세워놓고 그 기둥에 드리운 끈들을 잡고 춤을 추면서 그것을 엮어 단심줄을 만들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가무는 붉은 기둥을 든 1~2명의 출연자들이 먼저 노래에 맞추어 무대중심으로 나오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무대조건에 따라 막이 열리기 전에 붉은 기둥을 장치해 두었다가 음악이 시작되면 막을 열기도 하였다. 붉은 기둥 꼭대기로부터 드리워진 여러 가지 색깔의 끈들을 각계각층으로 분장한 출연자들이 쥐고 기둥 주위를 빙빙 돌아간다. 그러면 어느덧 여러 가닥의 끈들은 머리채 모양으로 기둥에 감기게 되며 끈이 거의 다 감길 무렵이면 춤과 노래는 더욱 고조된다. 출연자들은 전체 조선민족은 굳게 뭉쳐 힘차게 싸우자고 호소하는 노래 소리 높이 부르며 기둥의 주위를 힘차게 돌아가면서 단심줄을 완전히 땀는다.<sup>7)</sup>

<단심줄> 공연에서 가장 중요한 형상 수단은 무용이다. 북한에서 <단심줄>을 무용 장르로 분류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위의 자료에 따르면 <단심줄>의 무용동작은 “굽디더건기, 모아건기, 메고감기, 메고뿌리치기, 거퍼달리기, 점찍어돌기, 손벽치기, 발구르기 등 썩썩하고 발랄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단심줄>에 사용된 노래로는 <단심가>, <민족해방가>, <통일전선가>, <유회곡>, <총동원가> 등이다. 또한 『항일혁명무용동작』에 따르면 등장인물은 남자 5명(로동자, 농민, 학생, 혁명군, 아동단원 각 1명)과 여자 5명(로동자, 농민, 학생, 혁명군, 아동단원 각 1명)이며, 주요 소품으로는 단심대 1개와 단심줄 10줄(청색 2, 황색 2, 백색 3, 적색 3)이 있다.<sup>8)</sup>

『문학예술사전(중)』에서는 <13도 자랑>에 대해 “혁명가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 시기에 친히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 명작”으로 규정하고 있다.<sup>9)</sup>

같은 자료에 따르면 작품은 “조선의 13도를 대표하는 13명의 연예대원들이 각기 자기 도의 지도를 가지고 나와 도의 자랑을 노래하며 그것을 무대 가운데에 세워놓은 판에다 차례로 붙여 조선지도를 형상하는 과정을 통하여 그들의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독립되고 번영하는 새 조국을 일떠세울 열렬한 지향과 결의를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sup>10)</sup> <13도 자랑>의 기본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가무는 혁명가요 <총동원가>에 맞추어 남녀가 사이사이에 끼워서서 줄지어 나오는 데로부터 시작된다. 먼저 평안남도, 평안북도 지도, 강원도 지도를 든 출연자들이 나와서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노래하며 춤을 추다가 차례로 그것을 판에다 붙인다. 다음은 함경남도, 함경북도, 황

6) 『문학예술사전』(상),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8, 457면.

7) 위의 책, 457면.

8) 최문신, 『항일혁명무용동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2, 110면.

9) 『문학예술사전』(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1, 355면.

10) 위의 책, 355면.

해도,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의 차례로 각각 자기들의 지도를 들고나와 노래하며 춤추다가 판에 붙인다. 지도를 다 붙여 아름답고 풍요한 조국의 지도가 완전히 형성되면 혁명가요 <민족해방가>와 <총동원가>를 부르며 춤을 춘다.<sup>11)</sup>

위의 자료에 따르면 <13도 자랑>에서는 “어린이들의 특성에 맞는 춤 동작”, “특히 지도를 가슴 혹은 머리 위로 치켜드는 동작, 손벽치기 동작, 다양한 걷기 동작들과 자기 도를 자랑할 때에 관중을 향해 지도를 올렸 다내렸다하는 동작”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항일혁명무용동작』에 따르면 <13도 자랑>의 주요 장면은 <13도 자랑가>를 맞추어 진행되며, 남자 7명, 여자 6명의 등장인물, 도별지도 13개와 지도판 1개의 소품으로 구성 되어 있다.<sup>12)</sup>

## 2.2. 작품의 비교: 공통점과 차이점

우선 작품들 사이에 눈에 띄게 드러나는 차이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20년대 가극 <열세 집>은 한 작품으로 구성된 것인데, 북한에서는 <단심줄>과 <13도 자랑>의 두 작품으로 나누어져 있다. 작품이 나눠진 것은 가극 <열세 집>의 기본 구성이 쉽게 분리 가능한 ‘단심줄 놀이’와 ‘조각지도 맞추기’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반적인 극 작품과 같이 유기적 구성을 이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만주지역의 공연에서 규모가 작은 두 작품으로 분리한 것은 언제 어디서나 쉽게 공연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1) 위의 책, 355면.

12) 최문신, 앞의 책, 130면.

둘째, 장르명칭이 <열세 집>은 ‘가극’으로 명명하고 있는 데 비해, 북한에서는 ‘가무’ 또는 ‘무용’으로 부르고 있다.

셋째, 작품에 사용된 노래 곡목에서 일부 차이가 발견된다. 가극 <열세 집>에 사용되었던 <우리의 우슴과 눈물>, <맹호약동(猛虎躍動) 산해진(山海震)>, <축복>, <아름답다 열세 집> 등의 곡목이 <단심줄>이나 <13도 자랑>에서는 보이지 않고, 반면 가극 <열세 집>에 사용되지 않았던 <민족해방가>, <총동원가>, <13도 자랑가> 등이 <단심줄>이나 <13도 자랑>에 사용되고 있다.

넷째, 작품의 주제에서 가극 <열세 집>이 ‘주 예수’를 중심으로 단결하는 기독교적 내용으로 되어 있는 데 비해, <단심줄>이나 <13도 자랑>은 ‘당의 영도’에 따라 민족이 단결하고 조국의 독립을 지향한다는 정치적 내용으로 되어 있다.

다섯째, 작품의 주제가 달라지면서 등장인물의 구성도 달라지고 있다. 가극 <열세 집>에서는 기독교 조직의 각 지역 대표가 주요 등장인물로 되어 있는데 비해, <단심줄>이나 <13도 자랑>에서는 각 계층을 대표하는 인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표면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작품의 내용이나 형식을 비교해 보면 거의 동일한 작품이라 규정할 수 있다. 이 작품들 사이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극 <열세 집>의 중심 구성이 ‘단심줄놀이’와 ‘조각지도 맞추기’인데, <단심줄>은 ‘단심줄놀이’를 중심으로, <13도 자랑>은 ‘조각지도 맞추기’를 중심으로 분화된 것으로서 사실상 동일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앞에서 인용한 『문학예술사전』에서도 <단심줄>과 <13도 자랑>이 결합되어 보다 큰 규모의 예술형식으로 공연되곤 하였다고 기술하고 있기도 하다. 즉, 현재 북한에서는 두 작품을 분리하여 전승하고 있지만 두 작품을 통합하여 공연된 사례를 언급함으로써, 두 작품을 결합하여 공연하면 사실상 가극 <열세 집>과 동일한 작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해 준다.

1920년대 초 가극 <열세 집> 공연에 사용된 단심주(團心柱)와 지도등(地圖燈)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진자료는 1920년대 초로 추정되는 전주서문밖교회의 가극 <열세 집> 공연 관련 사진이다.<sup>13)</sup> [그림3]은 교회건물 앞에서 단심주를 중심으로 공연 출연진이 기념 촬영을 한 사진으로 보인다. 단심주 윗부분은 단심줄이 뿔어져 있고, 오른쪽 윗부분에 여러 가지 색깔로 채색된 '조선지도(지도등으로 추정됨)가 매달려 있다. 또한 단심주를 둘러싸고 출연자들이 단심줄의 끝부분을 손에 쥐고 있다. 화면 왼쪽 아랫부분에는 공연 때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지도판이 세워져 있고, 그 위에는 '조선지도'의 윤곽이 그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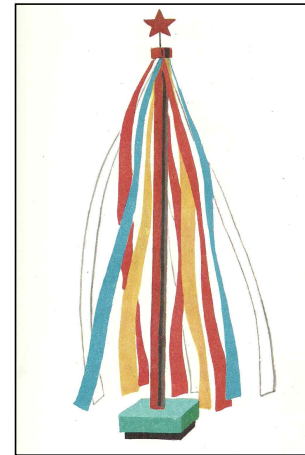


[그림3] 전주서문밖교회 <열세 집> 공연 출연진(1920년대 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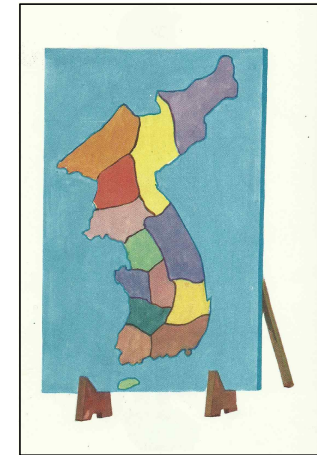
그런데 이 사진을 통해 확인된 가극 <열세 집>의 단심주와 지도등이 북한에서 발간된 『항일혁명무용동작』에서도 그대로 확인된다. 이 책에서

13) 전주서문교회의 홈페이지(<http://www.i-seomoon.or.kr>)에 탑재된 '전주서문교회 100년사에 실려 있는 사진이다. 전주서문교회(당시에는 서문밖교회)에서는 신흥학교 교사이던 이경혁(李卿赫)의 지도로 '단심가극단'을 조직하여 가극을 공연했으며, 1923년 2월 이경혁이 사망한 이후에는 현제명이 계승하여 아동가극 활동을 계속했다고 한다. 따라서 사진은 1920년에서 1923년 2월 사이에 찍은 공연 기념 사진으로 추정된다.

는 부록 자료로 <단심줄>과 <13도 자랑>의 공연 의상과 소품을 그림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그림3]의 단심주 및 지도등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sup>14)</sup>



[그림4] 북한 <단심줄>의 단심대 및 단심줄



[그림5] 북한 <13도 자랑>의 조선지도판

이처럼 가극 <열세 집>에서 사용된 단심주와 지도등이 북한의 <단심줄>과 <13도 자랑>에서도 거의 동일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단심줄>과 <13도 자랑>을 하나의 작품으로 결합하여 공연하는 경우 가극 <열세 집>과 동일 작품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둘째, 작품에 사용된 노래에서도 일부 공통된 곡들이 발견된다. 북한 '항일혁명무용'의 채록집이라 할 수 있는 『항일혁명무용동작』에 소개된 <단심줄>의 무보(舞譜)에는 <단심가>에 맞추어 '단심줄놀이'를 진행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물론 가사 내용에 일부 변화가 있지만, 곡 자

14) 최문신, 앞의 책, 211~212면.

체는 동일한 곡이 사용되고 있다. 가극 <열세 집>에서는 ‘단심일세 단심일세 우리 마음 단심일세 뜻과 마음 같이하여 예수 탄일 축하하세, ‘우리 마음 우리 정신 십자가로 단심일세와 같이 크리스마스에 예수를 찬양하자는 기독교적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비해, 북한의 <단심줄>에서는 기독교적 가사는 삭제되고 ‘단심일세 단심일세 우리 민족 단심일세와 같이 민족적 내용으로 대체되어 있다.<sup>15)</sup> 또한 <13도 자랑>에 사용된 노래 <13도 자랑가>의 가사를 보면 “북편에 백두산과 두만강으로 남편에 제주도 한나산까지 동편에 강원도 울릉도로 서편에 황해도 장산곶까지 우리우리 조선의 아름다움을 맹호로 표시하니 십삼도로다”로 되어 있어 가극 <열세 집>에서 ‘조선 지도등 맞추기’를 하면서 부르던 <맹호약동 산해진>과 동일한 내용이다.<sup>16)</sup> <단심가>와 <맹호약동 산해진>은 가극 <열세 집>의 중심 노래인데, 북한의 무용 <단심줄>과 <13도 자랑>에서도 각각 중심 노래로 사용되고 있다.

셋째, 장르 명칭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가극 <열세 집>이든 무용 <단심줄>과 <13도 자랑>이든 작품에 사용된 주된 형상 요소가 노래와 춤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그 명명법은 각기 시대적 환경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유사한 성격의 공연 작품을 단지 이름을 다르게 붙였을 뿐 동일 장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작품 제목에서도 유사성이 발견된다. 당초 가극 <열세 집>은 <단심주>나 <단심줄> 등의 이명으로 불리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단심줄>이라는 제목이 <열세 집>이라는 제목과 다르지 않다고 할 수

15) 최문신, 앞의 책, 111~129면.

16) 위의 책, 131~156면.

한편 북한에서 발간된 『개봉기가요선곡집』(문학예술종합출판사, 2001)에는 <조선13도가>가 실려 있는데, 그 가사 내용을 보면 <13도 자랑가>, <맹호약동 산해진>과 같은 곡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책에는 <무궁화 동산>이라는 노래가 실려 있는데, 그 가사와 악곡은 가극 <열세 집>에 사용된 <우리의 웃음과 눈물>과 동일한 노래이다. 즉, 북한에 최근까지 가극 <열세 집>에 사용된 노래들이 전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있다.<sup>17)</sup> 또한 가극 <열세 집>의 제목이 ‘조선 13도를 의미한다고 보았을 때 작품 제목만으로 보면 <13도 자랑>의 제목과 내용적 연관성이 짐작된다.

결론적으로 김현순의 가극 <열세 집>과 북한의 <단심줄>·<13도 자랑>은 작품의 주제와 등장인물, 곡목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작품의 핵심 모티프인 ‘단심줄놀이’와 ‘조각지도 맞추기’의 유지, <단심가>와 <맹호약동 산해진> 등 주요 악곡의 사용으로 동일한 작품의 이본(異本)으로 평가할 정도로 유사성이 확인된다.

### 3. 가극 <열세 집>의 북한 수용 과정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20년대 초에 초연된 김현순의 가극 <열세 집>과 해방 이후 북한에서 ‘혁명무용’으로 자리 잡은 <단심줄>과 <13도 자랑>은 동일한 작품의 이본에 가깝다. 그렇다면 이 작품들 사이의 상호영향 관계는 어떠한지 규명해 볼 차례이다.

시간의 순서를 따라 그 개략적인 흐름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1920년 서울 승동교회에서 전조선주일학교대회의 일환으로 승동교회 유년주일학교 학생들이 가극 <열세 집>(김현순 작) 공연
- ② 1923년 큰샘 한석원이 엮은 『음보부 각본 가극집』 제1집(영창서관, 1923.)에 가극 <열세 집>(김현순 작) 대본 수록
- ③ 1924년 평양 창덕학교 가을운동회에서 음악유희 <열세 집> 공연에 김일성(당시 13세) 참여
- ④ 1926년 김일성(당시 15세)이 길림의 화성의숙에 입학 이후 조선인길림소년회 ‘연예선전대를 조직하여 1927년 가을 가무 <단심줄>과

17) 박영정, 앞의 글, 85~86면.

<13도 자랑>, 가극 <조선의 노래> 공연(이후 1930년대 전반기까지 만주 여러 지역에서 공연)

- ⑤ 1950년대 이후 김정일에 의해 재현, 계승되고 있는 혁명무용 <단심줄>과 <13도 자랑>

여기에서 북한의 무용 <단심줄>과 <13도 자랑>에 해당하는 부분은 ③에서 ⑤까지의 과정이다.

북한의 문헌자료에서 <열세 집>이라는 작품명을 직접 언급하고 있는 자료는 김일성의 창덕학교 시절을 다루고 있는 경우에 제한되어 있고, ④와 ⑤를 다루는 모든 문헌에서는 <열세 집>이 아닌 <단심줄>과 <13도 자랑>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열세 집>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대표적인 자료는 김일성의 회고록이다.

일제를 증오하고 조국을 사랑하는 사상감정은 우리가 만든 음악유희 <열세 집>에도 반영되었다. 음악유희 <열세 집>은 13명의 학생들이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르며 마분지로 만든 열세 개의 지도를 붙여 조선지도를 만드는 춤이다.

1924년 가을철운동회 때 이 음악유희를 무대에 올렸는데 공연도중에 순사가 운동장에 나타나 당장 걷어치우라고 야단을 쳤다.<sup>18)</sup>(밀줄-인용자)

13명이 출연하여 '조선지도'를 만드는 춤이었다는 회고로 보아 이 <열세 집>이 김현순의 가극 <열세 집>과 동일성이 있는 작품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단심줄놀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김현순의 가극 <열세 집>의 일부분만 공연했을 수도 있다. 전체를 공연했던 부분을 공연했던 공연의 제목이 <열세 집>이었던 것은 창덕학교의 <열세 집>이 김현순의 <열세 집>을 토대로 한 것이었다는 결정적 증거이다.<sup>19)</sup>

18)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91면.

그런데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은 김일성이 음악유희 <열세 집>을 놓고 '우리가 만들었다고 진술한 부분이다. 여기에서 '우리'라 함은 김일성을 포함한 창덕학교 학생들을 지칭하는 것이고, '만들었다' 함은 작품을 '창작했다'는 의미라기보다 '공연을 준비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자료 외에 <열세 집>을 언급하고 있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어린 시절』(인민학교 제4학년용)에서는 김일성이 운동회가 끝난 다음 '연예공연을 조직하였는데, 음악유희 <열세 집>도 김일성의 '지도' 아래 공연이 이루어진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sup>20)</sup>

그렇게 보면 창덕학교 시절 <열세 집> 공연에서는 작품명도 김현순의 <열세 집>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김일성이 공연을 만들거나 지도했다는 표현은 있어도 '창작했다'는 표현은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이후 이른바 '항일혁명문학예술'로서 <단심줄>과 <13도 자랑>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 자료들에서는 일관되게 김일성이 작품을 창작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 결정판은 앞에서 살펴본 『문학예술사전』의 기술인데, <열세 집>에서 <단심줄>과 <13도 자랑>로 이름이 바뀌면서 '김일성이 직접 창작한 불후의 고전적 명작'으로 탈바꿈하게 된 것이다.

김일성은 1926년 화성의숙에 입학하면서 길림 등 만주지역에서 조선인 길림소년회 '연예선전대'를 조직하여 여러 공연 활동을 전개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른바 '항일혁명문학예술'의 시작이다. <단심줄>과 <13도 자랑>은 이 연예대 활동의 주요 레퍼토리였다. 최초의 공연은 1927년 가을 길림조선인소학교 운동장에서 있었다.(오상현의 회고, 1965.5)<sup>21)</sup> 이 공연을

19) '음악유희란 당시의 아동가극이 노래와 춤으로 이루어진 데서 오는 장르명칭으로서, 흥난파가 부정적인 의미로 지칭했던 '창가유희(唱歌遊戯)'라는 장르명칭과도 연 결된다고 할 수 있다.

홍난파, 「가극의 이야기」, 『개벽』 제31집, 1923.1, 26면.

20) 김영식,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어린 시절』, 교육도서출판사, 2001, 62~64면.

2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혁명력사자료집(1926.6~1930.5)』,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269면.

준비하는 과정에서 김일성은 <단심가>를 직접 풍금으로 연주하면서 연예대원들을 지도했다고 한다.(김병숙 회고, 1978.2)<sup>22)</sup>

우선 <13도 자랑>의 내용을 보면 조선 13도를 대표하여 13명의 연예선전대원들이 서로 색깔을 다르게 그린 우리 나라의 도별 지도를 하나씩 들고 나와 춤을 추면서 무대 주위를 빙글빙글 돈다. 그리고는 각기 자기 도의 자랑을 노래하고 나서 그것을 무대 한복판에 세워놓은 판 우에 차례로 붙여놓는다.

판 뒤에는 도별로 꽂아놓은 초대가 세워져 있었는데 여기에 불을 켜 놓으면 각이한 색깔의 화려한 조선지도가 더욱 선명하게 보인다.

13명의 연예선전대원들은 합창을 한다.

북편에 백두산과 두만강으로

남편에 제주도 한나산

동편에 강원도 울릉도로

서편에 황해도 장산곶까지

우리 우리 조선의 아름다움을

매 도로 표시하니 13도로다

노래는 3절까지 계속된다. 그리고 가무 <단심줄>은 노동자, 농민, 학생, 지식인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연예선전대원들이 붉은 기둥을 중심으로 하여 드리워진 여러 가지 색깔의 천을 잡고 <단심가>에 맞추어 춤을 추는 가무이다.

막이 열리면 무대 우에는 여러 가지 색깔의 천줄이 드리워진 붉은 기둥이 세워져 있다.

무대에 나온 소년, 소녀들은 두 명씩 짝을 무어 <단심가>에 맞추어 춤을 추며 무대 북편에 세워놓은 붉은 기둥에 드리워진 각이한 색깔의 천줄

22) 위의 책, 279~280면.

을 잡고 엇바뀌어 돌아가면서 기둥우의 단심줄을 엮고 풀고 한다.<sup>23)</sup>

이는 당시 연예대의 일원으로 <단심줄>과 <13도 자랑> 공연에 참여했던 김병숙의 1978년 2월의 회고이다. <단심줄>의 등장인물이 달라진 부분을 제외하고 전체 공연의 틀은 김현순의 가극 <열세 집>과 거의 동일하다.

그런데 또다른 연예대원인 황귀현은 1983년 9월 연예대의 장춘 공연을 회고하면서 가극 <조선의 노래>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언급한다.

가극 <조선의 노래>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덕학교 시절에 친히 창작하시고 지도하신 <열세 집>의 내용을 더욱 풍부히 하신 가무 <13도 자랑>과 <단심줄>에 새로운 내용을 보충완성하여 각색한 것이었다.

이 회고에 의하면 <열세 집>을 김일성이 창작했다는 점, <13도 자랑>과 <단심줄>은 <열세 집>의 내용을 더욱 풍부히 한 것이라는 점, 가극 <조선의 노래>는 <13도 자랑>과 <단심줄>을 한 작품으로 엮고 새로운 내용을 보충하여 '각색'한 작품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sup>24)</sup> 앞서 살펴본 대로 김일성이 창덕학교 시절 <열세 집> 공연을 지도했을 수는 있지만 '창작'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 회고자 또한 창덕학교 시절의 <열세 집> 공연에 참여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열세 집>의 창작 문제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고 각 작품 사이의 관계에 대한 언급만 살펴본다면, 창덕학교 가극 <열세 집> → 길림 가무 <단심줄>과 <13도 자랑> → 길림 가극 <조선의 노래>의 순서로 만들어졌으며, 각각의 공연 과정에 김일성의 관여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23) 위의 책, 280~281면.

24) 가극 <조선의 노래>는 어느 농촌 마을을 배경으로 <13도 자랑>으로 시작하여 주인공 금아를 둘러싼 극적 사건이 전개되고, <단심줄>로 극을 마무리하는 규모가 큰 작품이라 할 수 있다(위의 책, 293~294면).



그런데 해방이 된 이후 북한에서는 김정일 주도로 1920년대 후반 이후 만주지역에서 공연되었던 <단심줄>과 <13도 자랑>을 재현하는 과정에서 ‘혁명무용’으로 자리매김 하게 된다. 김정일은 1974년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 명작 혁명가무 <단심줄>을 다시 형상하여 무대에 올리도록 무용예술인들을 이끌어” 주었다고 한다. <단심줄>의 ‘혁명무용’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당을 상징하는 ‘붉은 기둥’을 단심주로 세운 후 각계 각층이 다양한 색깔의 줄을 꼬아 나가는 장면을 형상하도록 하였다.<sup>25)</sup> 따라서 『문학예술사전』에 기술된 ‘혁명무용’ <단심줄>은 1960~70년대 북한 당국의 관점이 짙게 투영되어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1971년에 발간된 『위대한 주체사상의 빛발아래 개화발전한 항일혁명문학예술』에서 제시하고 있는 <단심줄>의 내용이 이후 북한 무용 <단심줄>의 기본 성격이 되었다.<sup>26)</sup> 경우에 따라 ‘항일혁명무용’에 대한 참가자들의 회고에까지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다. 때문에 단심주를 붉은 기둥으로 세우고, 등장인물을 노동자·농민·학생·병사·지식인 등으로 설정하는 등 북한관 <단심줄>의 특징적인 부분들이 1920년대 후반 만주지역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1970년대 재현 공연에서 만들어진 것인지는 좀더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문학예술부문에서 ‘유일사상체계가 확립되기 전단계인 1959년 11월 평양남산고급중학교에서 학생예술소조가 <단심줄>을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을 지켜보던 김정일이 마지막 장면에 <될 터이다>를 넣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는 일화가 있다.<sup>27)</sup> <될 터이다>라는 노래는 <단심가> 등과 함께 ‘항일무장투쟁’ 시기 만주지역에서 불려진 가요로서 해방 이후

25) 김고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된 불후의 고전적 명작들을 다시 형상하기 위한 무용예술인들의 투쟁’, 『력사과학』, 2008년 제3호, 13~14면.

26) 『위대한 주체사상의 빛발아래 개화발전한 항일혁명문학예술』, 사회과학출판사, 1971, 239면.

27) 최미옥, 『재현시켜 주신 혁명가무 <단심줄>』, 『조선예술』, 2006, 5면.

북한에 전승되어 온 노래이다. 여기에서 매우 흥미로운 부분은 <될 터이다>는 노래가 『음보부 각본 가극집』 제1집에 실려 있는 한석원 작 가극 <우리 꽃 피어서>를 이끌어가는 주제 음악이라는 사실이다.<sup>28)</sup> 1950년대 북한에 <단심줄>이 학생 공연으로 이어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1923년에 발간된 『가극집』 소재 다른 노래도 함께 전승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1920년대 후반 만주지역에서 <단심줄>이나 <13도 자랑> 등의 공연시 『가극집』에 실린 각본(악보 포함)을 활용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잠정적인 결론을 내려 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20년 김현순 작 가극 <열세 집>이 이 연구에서 검토한 일련의 작품들 가운데 최초로 만들어진 ‘원작’의 위치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1923년 발간된 한석원 엮음 『가극집』은 ‘원작인 김현순 작 가극 <열세 집>의 원형을 유지하고, 또한 널리 보급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단순히 구비전승의 방식이 아니라 활자로 고정된 텍스트가 있었기 때문에 노래와 춤 등 작품의 핵심적 요소가 공간적 시간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을 것이다.

셋째, 김일성은 1924년 평양의 창덕학교에서 처음 음악유희 <열세 집>을 접하고 공연에 참여한다. 다만 그 참여 방식은 분명하지 않으며, 가극 <열세 집>의 각본을 보았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그렇지만 1927년 만주지역에서 김일성 주도로 <단심줄>과 <13도 자랑> 공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김일성이 창덕학교 시절 접한 <열세 집>을 만주로 전파시킨 ‘전신자’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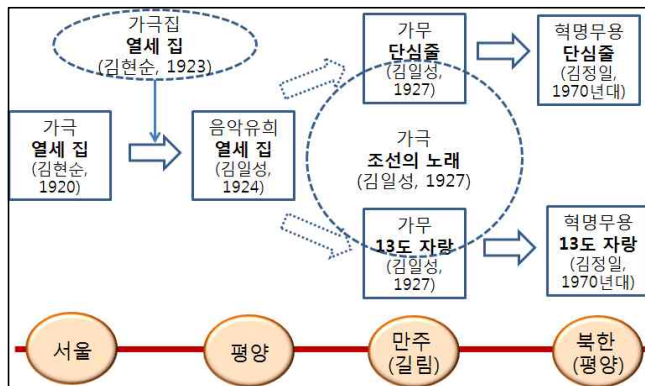
넷째, 만주지역에서 김일성은 소년연예대를 조직하여 <단심줄>과 <13도 자랑>을 공연하였는데, 이는 창덕학교 시절 <열세 집>을 좀더 풍부하게 ‘개작한 것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극 <조선의 노래>와 같이 여러 작품을 엮어서 ‘각색한 공연들에도 관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28) 한석원 엮음, 『음보부 각본 가극집』 제1집, 영창서관, 1923, 17~22면.

다섯째, <단심줄>의 단심주가 붉은 기둥으로 고정되고, 등장인물이 각계 각층으로 구성되는 등 정치적 성격이 강화된 것은 1920년대의 만주 지역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1970년대 김정일 주도의 '혁명무용'의 재현 과정에서 '재창조'된 것인지 불확실하므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여섯째, 오늘날 북한에서는 '혁명무용' <단심줄>과 <13도 자랑>을 만주 지역에서 김일성이 직접 창작한 '불후의 고전적 명작'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1924년 평양 창덕학교에서 공연된 음악유희 <열세 집>이 그 원본에 해당하며, 창덕학교의 <열세 집>은 또한 1920년 김현순이 창작한 가극 <열세 집>을 원본으로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김현순의 가극 <열세 집>은 '혁명무용' <단심줄>과 <13도 자랑>의 '원본의 원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6] 가극 <열세 집>의 북한 수용 경로

#### 4. 맺음말

이상에서 북한에서 '항일혁명무용'의 대표작으로 평가받고 있는 <단심줄>과 <13도 자랑>을 1920년대 초 서울에서 활발하게 공연되었던 가극 <열세 집>과 비교·분석하여 보았다.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가극 <열세 집>은 전국의 교회에서 널리 공연되기는 하였지만 원작의 저작자가 있는 창작물로서 고죽 김현순의 작품이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항일혁명무용'이라는 관점에서 보존·전승해 오면서 김일성의 '창작품'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북한 문학예술의 정통성을 '항일혁명문학예술'에서 찾고자 하는 북한 체제의 시각이 그대로 투사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들을 토대로 그 의미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 확인된 바대로 김일성이 '창작했다고 하는 북한의 '혁명무용' <단심줄>과 <13도 자랑>의 원작자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김일성의 창작품이라는 점을 앞세워 '항일혁명문학예술'을 '정전화'했던 북한의 예술사적 인식이 허구적인 정치적 환타지에 불과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북한에서는 '주체문학예술'의 형성 과정에서 김일성이 직접 '창작했다는 '항일혁명문학예술'에 '불후의 고전적 명작'이라는 수사를 붙여서 정전화해 왔다. 특히 김정일 주도로 진행된 '항일혁명문학예술'의 현대화 작업에서 혁명가극 <피바다>나 혁명연극 <성황당>, 혁명무용 <단심줄>, <13도 자랑>이 다른 작품들의 본보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작품들의 '원작이 김일성의 '창작이었다는 '사실'이 주는 정치적 효과 덕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김일성이 혁명무용 <단심줄>과 <13도 자랑>의 창작자가 아닐 뿐 아니라 그 원작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것, 김일성은 일종의 '전신자' 역할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남에 따라 북한 문학예술의 정통성 문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물론 이번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켜 '항일혁명문학예술' 전체를 허구적 환타지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이번 연구에서 그 단초를 마련한 만큼 이후 후속 연구를 통해 북한이 주장하는 '항일혁명문학예술' 전반에 대한 전면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이 연구를 통해 혁명무용 <단심줄>과 <13도 자랑>의 원작자가 김일성이 아니라는 점은 드러났지만, 그와 동시에 어떤 방식으로든 그 공연 과정에 김일성의 '관여'가 있었다는 점도 분명해졌다. 창덕학교의 <열세 집>과 만주지역의 <단심줄>, <13도 자랑> 공연 과정에서 김일성의 '관여 수준', 즉 '창작자인지' '각색자인지' 아니면 단순한 '전달자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김일성의 관여가 없었다면 그러한 공연들이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일성이 공연 연습의 지도였던 작품의 각색이었던 공연 과정에 관여하였고, 그 결과 원본이라 할 수 있는 기독교계 아동가극 <열세 집>이 '혁명무용' <단심줄>이나 <13도 자랑>으로 재탄생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항일혁명문학예술'의 형성 과정에서 김일성의 역할은 '허구가 아닌 '사실'의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항일혁명문학예술'의 형성 과정에서 김일성의 구체적인 역할을 규명하는 것은 후속 연구를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또한 북한에서 말하는 '창작'의 의미가 '원본성'의 구현만이 아니라 작품 창작 또는 공연 과정에의 '관여' 일반을 포괄하여 지칭하는 것이라면, '항일혁명문학예술'의 저작자 문제는 '사실상'의 문제가 아닌 '개념 규정'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향후 북한의 '혁명가극'과 '혁명연극', '혁명가요' 등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가면서 '항일혁명문학예술'의 원본성 및 원작자 문제를 규명해 나가야 할 것이다.<sup>29)</sup>

29) 일찍이 민경찬 교수는 북한 혁명가요의 상당수가 그 원본이 일본 노래라는 점을 밝힌 바 있다.

민경찬, 「북한의 혁명가요와 일본의 노래」, 『한국음악사학보』 제20집, 한국음악사학

셋째, 김일성이 '원본의 창작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역으로 '항일문학예술'의 존재 자체가 '날조'되었을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점을 말해 준다. '혁명무용' <단심줄>이나 <13도 자랑>의 원본이 되는 작품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작품이 만주지역에서 공연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김현순의 가극 <열세 집>이 부재한 상황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항일혁명문학예술'로서 <단심줄>이나 <13도 자랑>만 존재하고 있다면, <단심줄>이나 <13도 자랑>이 북한이 날조해 낸 '정치적 허구'일 수도 있다. 그러나 만주지역의 <단심줄>이나 <13도 자랑>에 앞서서 공연되었던 가극 <열세 집>의 존재가 분명해진 만큼, 만주지역에서 공연되었던 <단심줄>이나 <13도 자랑>의 실체 또한 '사실'일 개연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항일혁명문학예술'의 존재성과 관련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적어도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항일혁명문학예술'이 백지 위에서 날조한 허구의 역사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향후의 '항일혁명문학예술'에 대한 연구에서는 북한 주장처럼 '신성화'하거나, 아니면 그와는 반대로 그 실체 자체를 부정하는 극단의 관점을 취하기보다는 실체는 실체대로 인정하되 북한의 주장이 가진 허구성을 합리적으로 규명하여 '항일혁명문학예술'의 '온전한 실체'를 밝혀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김일성의 '창작'이라는 점을 근거로 북한 당국이 '정전화'해 왔던 '항일혁명문학예술'의 '정치적 환타지'를 걷어내는 데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회, 1998, 125~157면 참조.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혁명력사자료집(1926.6~1930.5)』,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위대한 주체사상의 빛발아래 개화발전한 항일혁명문학예술』, 사회과학출판사, 1971.

2. 단행본

김영식,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어린 시절』, 교육도서출판사, 2001.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1』,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최문신, 『항일혁명무용동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2.  
한석원 엮음, 『음보부 각본 가극집』 제1집, 영창서관, 1923.  
홍난파, 「가극의 이야기」, 『개벽』 제31집, 1923.  
황룡옥 엮음, 『계몽기가요선곡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2001.  
『문학예술사전』(상),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8.  
『문학예술사전』(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1.

3. 논문 및 평론

김고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된 불후의 고전적 명작들을 다시 형상하기 위한 무용예술인들의 투쟁」, 『력사과학』, 2008년 제3호.  
민경찬, 「북한의 혁명가요와 일본의 노래」, 『한국음악사학보』 제20집, 한국음악사학회, 1998.  
박영정, 「가극 <열세 집>에 나타난 초기 가극의 한 양상」, 『한국극예술연구』 제28집, 한국극예술학회, 2008.  
\_\_\_\_\_, 「1920년대 초 주일학교 공연 레퍼토리 분석-고숙 김현순의 아동가극을 중심으로」, 『한국문학과학예술』 제5집, 송실대학교 한국문예연구소, 2010.  
최미옥, 「재현시켜 주신 혁명가무 <단심줄>」, 『조선예술』, 2006.

4. 인터넷 자료

전주서문교회 홈페이지(http://www.i-seomoon.or.kr)

Abstract

A Reception Aspect of Music-drama *Yeolsejib* in North Korea

Park, Young-jeong

In North Korea, *Dansimjul* and *The pride of 13 provinces* of 'Revolutionary Dance' are evaluated as 'the immortal classical masterpiece' created by Kim, Il-sung. However, recently music-drama *Yeolsejib* estimated as their original work is discovered. So we have to study of relations among these works.

Firstly, in this study we found out about some similarities of basic composition among these works. But we also found out about differences of characters and theme among them.

Secondly, we found out that music-drama *Yeolsejib* by Kim, Hyun-soon was spread to Manchuria and North Korea and it was recreated as *Dansimjul* and *The pride of 13 provinces* of 'Revolutionary Dance'. And Kim, Il-sung took a role as a messenger in that process.

This study concluded that *Dansimjul* and *The pride of 13 provinces* of 'Revolutionary Dance' are not Kim, Il-sung's creative works but an alternate version of music-drama *Yeolsejib*.

Key words : music-drama, *Yeolsejib*, *Dansimjul*, *The pride of 13 provinces*, revolutionary dance, arts and literature of resistance movement against Japan Imperialism, Kim, Il-sung

접수일: 2014년 7월 31일  
심사기간: 2014년 8월 9일~8월 24일  
게재결정: 2014년 8월 29일